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4일 화요일 음 6월 15일 (7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간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the day.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Jeju Island.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민간우주선 첫 정거장 왕복 '성공' 평가

우주택시 시대 향한 첫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 왕복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주택시' 시대를 향한 첫발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 모습.

미국 우주항공국(NASA·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은 지난 5월 30일 발사돼 약 두 달간 ISS에 머문 뒤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에 착륙하며 지구로 귀환했다.

나사와 스페이스X는 정기운항을 다음 과제로 삼고 앞으로 약 6주간 크루 드래건 비행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오는 9월 말 나사 우주비행사 2명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비행사 1명을 태운 '크루-1'을 우주로 보내 첫 실제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사상 첫 '민간우주선 우주 왕복'에 성공한 것으로 주목을 받는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에 사람을 보냈다가 안전하게 데려온 첫 민간기업이 됐다.

내년 봄에는 나사, JAXA, 유럽우주국(ESA) 비행사를 태운 '크루-2'를 발사한다. 크루-2 발사 1년 후 크루 드래건 비행 때 사용된 유인캡슐 '데모-2'가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훗날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보편화되게 되면 시효로 기록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사람이란 철저히 악하지도 않고 지극히 선하지도 않다."

'로마서 논고'에 나오는 마키아벨리의 이 말은 선악 이분법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오래된 명제 중 하나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에 자주 목도되는 위력이나 위계로 인한 피해 폭로는 특히 개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의 진위를 밝혀내야 하는 권력형 갑질 문제이기도 하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이 공방전에서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자들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들의 주된 방어 전략은 피해자를 되려 공격하면서 그 위치까지 빼앗는 것이다.

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 밝히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다.

열린마당

'안전지대'는 주차공간이 아니다



강지운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항 인근 공항로 일대를 순회하다보면 황색 안전지대에 버섯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한다.

코로나19와 영어



강승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생활 쓰레기들이 날브러져 있었다. 도로 교통법상 황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의 10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가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동그란 모양 주위에 동그란 것들이 달려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모양과 왕관의 모양이 유사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알려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단어들이 수록됐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황색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로 인해 안전지대로 진입해 대기해야 할 경우 필요한 곳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알려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단어들이 수록됐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들 간의 상충을 예방하고 위급상황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사고 예방과 더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할 구간'임을 숙지하고, 나의 불법행위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변화시키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soil pH and crop yield.

Large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listing various product types and their uses.